교통사고 6건 중 1건은 고령자

최근 3년 2100건 발생… 93명 사망·2269명 부상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활성화 절실
제주지역 대상자 5만명… 반납 비율 4.5% 그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수백건대 발생하며 사망자 또한 늘고 있다. 이에 제주도 등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4239명(사망 82명·부상 6611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부상 6818명), 지난해 4030건(사망 68명, 부상 61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733건(사망 35명·부상 798명), 2019년 753건(사망 31명·부상 811명) 지난해 624건(사망 27명·부상 660명)으로 최근 3년동안 2100건이 발생해 93명이 숨지고 22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을 반납 건수는 ▷2019년 474건 ▷2020년 1307건 ▷올해 8월까지 520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고령 운전자 5만236명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면허증 반납은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농민 박모(75)씨는 "농사를 지을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면허증을 반납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도 있어 차량을 선뜻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령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면허증 제출과 교통비 지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말 구경하기 좋은 가을 제주 14일 제주시 한림읍 성이시돌목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말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산공원 레이더시설 허가 취소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한라산국립공원에 들어설 국가 레이더 시설과 관련, 건설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건축허가를 낸 행정당국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한라산국립공원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레이더 시설은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삼형제큰오름 정상 부근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며 "이 곳은 백록담과도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다.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뱅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제주와 정부가 법을 어기며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사업은 명백히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연합은 "레이더시설은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500평에 가까운 큰 시설물이다. 오름 정상에 설치하면 막대한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제주도가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 판단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내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 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도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경마중단 사태로 제주 세입 '뚝'

마사회 레저세 2019년 761억→2020년 111억

코로나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작년 한해 마사회가 제주도에 납부한 레저세가 전년도에 비해 65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은 4368억원 적자로 2019년 1449억원 흑자에서 1년만에 5817억원 감소했다.

이로인해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레저세도 대폭 감소했다. 마사회는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다. 2019년 레저세 납부액은 7357억원이었는데 2020년 1089억원으로 6268억원(-85%) 줄었다.

과천 경마공원이 있는 경기도가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10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시가 744억원, 부산시 664억원, 제주도 651억원, 경상남도 580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마사회가 제주도에 납부한 레저세는 2019년에는 761억원이었으나, 2020년 111억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륜, 경정과 같이 경마도 입장권 온라인 발매를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농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말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의 누적 매출손실액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미현기자

직원 추행 전 제주시청 국장

항소심 징역 2년… 형량 늘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청 간부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선 습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선 습벽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에게 1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7월부터 여직원 B씨를 껴안는 등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일 진행한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A씨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 이전 1심에서는 상습이 아니라고 봤지만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범행이 용이한 국장실에서 수차례 이뤄진 점을 보면 습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전문점 개점

지역 상권 반발 여전… 람정제주 고발

제주지역 상권의 반발에 부딪혀 온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15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개점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제주신화월드 내에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을 이날 개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사이먼이 여주, 파주, 부산, 시흥점에 이어 5번째로 선보이는 매장인데, 지역 상권의 요구에 따라 공식 명칭을 '아웃렛' 대신 '전문점'으로 변경했다.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철수한 자리(8834.54㎡)에 문을 여는 전문점에서는 60여개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사이먼은 당초 지난 여름 개장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하지만 도내 일부 상인단체가 상권 피해를 호소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5차례의 조정 협의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하순 사업 조정을 권고했다. 신세계사이먼측에 권고한 내용은 도내 매장에서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 제한 등이다.

하지만 개장 시점까지도 지역 상인단체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6개 상인단체는 14일 점포 등록 업체인 람정제주개발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인단체는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 매장면적 과소 편입, 대규모 점포사업 업태 오등록, 상권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신세계사이먼은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품 중심의 점포를 개설한다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했지만 명품 구성이 아닌 제주도 의류점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골프, 중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오픈하고 있다"며 "명품 중심의 프리미엄 매장 오픈은 찬성하지만 중저가 제품을 취급하는 아웃렛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사이먼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00여명의 도내 채용 직원과 입점 브랜드의 피해를 감안해 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엠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뿌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애월읍 상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탱자묘 1년생
유라조생 접수분양계약
한림종묘사
010-3690-24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수확의 동반자 "과일망태"
더 이상 허리숙여 수확하지 마세요!
☞ 작물 수확하는 수확용 가방 '과일망태'
☞ 허리 피로가 크게 감소, 작업능률 대폭 상승
☞ 두툼한 등 · 어깨 패드로 오래 작업해도 편안함
☞ 사과, 감, 귤, 대추, 키위 등 과일 / 옥수수, 피망, 파프리카, 가지 등 갖가지 채소 수확에도 편리함
▲ 과일망태 착용 정면 ▲ 과일망태 착용 후면 ▲ 과일망태
쳐진 가지 들어 올릴때, 안파고 드는 "안파고"
안파고 드는 유인줄 "안파고"
☞ 사과, 복숭아, 자두 등 다양한 나무 견인 작업에 탁월한 효과.
☞ 사다리에서도 편리하고 오래 작업해도 손이 아프지 않음.
☞ 초간편 원터치&쉬운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끝.
• 안파고 110호 (작은 고리 × 1m)
• 안파고 115호 (작은 고리 × 1.5m)
• 안파고 210호 (큰 고리 × 1m)
• 안파고 215호 (큰 고리 × 1.5m)
까치 · 까마귀 · 새 쫓을 때!~ 다인독수리연
4m 폴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폴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과수 유인추,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다인산업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승본리 609)
☎ 상담 및 문의 ☎
054-652-3725
홈페이지 www.dainfine.com